‘전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성공 하려면

〈순천·고흥·보성·강진·전남대·순천대·서울대〉

제각각 쌀 품종·품질 통일부터

전남발전연구원 장덕기 연구위원

전남도와 순천·고흥·보성·강진군 등 4개 시·군(5개 농협)과 전남대·순천대·서울대학교가 산학연관 으로 추진중인 ‘전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협별로 제각각인 쌀의 품종과 품질을 동일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장덕기 연구위원은 연구간행물인 리전인포에 게재한 ‘전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무농약 또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전남 친환경쌀의 판매 확대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5개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미질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에는 순천지역 220 농가를 비롯해 4개 지역 총 726 농가(면적 600ha)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이 재배한 전남 친환경 쌀 브랜드 ‘자연이 숨쉬는 쌀’은 유기농 제품의 경우 1천㎡(300평) 당 80만원의 소득을 올려 일반쌀 50만원에 비해 60% 가량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참여 시군별, 작목반별로 재배하는 품종이 청무벼, 일미벼, 신의벼 등 6종류나 돼 수확 후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이 전국 브랜드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남 친환경 쌀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품질 관리로 연중 동일한 미질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장덕기 연구위원은 “전남 친환경 쌀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농가에 따라 종류가 다른 품종을 하나로 통일해 일관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똑같은 품종을 동일한 친환경 전문도정공장시설을 통해 생산해야 고품질 유지가 가능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해남, 겨울배추 소비촉진 한마당 해남군은 지난 9일 경기도 성남 농협 하나로클럽 광장에서 김충식 해남군수와 김평윤 해남군의회 의장,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재경향우, 성남시 부녀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회 겨울배추 소비촉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정남진 장흥 마라톤 대회 ‘제 3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지난 9일 장흥읍 탐진천변과 장흥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 5㎞ 등 4개 종목에 4천여명의 건각들이 참가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한우 브랜드 컨설팅 확대

전남도, 올해 ‘녹색한우’ ‘매력한우’ 추가

전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한우브랜드 사업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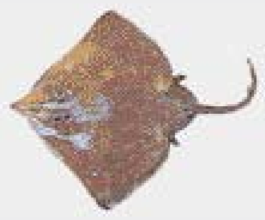
전남도는 지난해 ‘함평천지한우’와 ‘순한한우’에 이어 올해 ‘녹색한우’와 ‘매력한우’ 브랜드 사업단의 경영·재무·마케팅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녹색한우(무안 등 서부권 10개 시·군 참여)’와 ‘매력한우(영암)’ 브랜드의 품질 및 이미지 차별화로 브랜드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며 각 브랜드사업단에 1억씩 2억원이 지원된다.

행정·농협·사업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오는 14일께 농림부가 지정한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남지역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란 유채밭에서 홍어 삼합

“영산포 홍어축제 오세요”

5월3일부터 3일간 영산포 선창 일원서 열려

영산포 홍어축제가 오는 5월3일부터 3일간 영산포 선창 일원에서 열린다.

영산포 홍어축제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기획에서 진행까지 도맡는 등 철저하게 주민 참여축제로 치러진다.

추진위는 영산강 둔치를 노랗게 물들일 수십만㎡의 유채밭에서 다양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저렴한 가격에 홍어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갖가지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홍어삼합 먹기 대회, 홍어 퀴즈쇼, 홍어장사 선발대회, 홍어 예쁘게 썰기 등 홍어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영산포는 1970년대 말까지 호남 내륙 물류 중심지이자 홍어와 젓갈의 집산지로 유명했으나 1980년대 초 하구언이 생기면서 명성이 퇴색됐다. 그러나 최근 3~4년 사이에 영산포 홍어 거리 활성화 등에 힘입어 서서히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해남 땅값 차이 1만1천611배

최고 1㎡당 209만원

최저는 1㎡당 180원

해남군에서 가장 비싼 땅과 싼 땅의 가격차가 1만1천6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이 10일 발표한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관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남읍 성내리 21-1번지 안경월드로 1㎡당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만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반면 가장 싼 땅은 현산면 덕흥리 산 125 임야로 1㎡당 가격이 180원에 불과하다. 공시지가만 보면 성내리 안경월드 1㎡를 팔면 덕흥리 임야 1만1천611㎡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해남군의 표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1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면 지역별로는 서남해안관광기업도시 1차 사업예정지구인 산이면(1.69%)과 대한조선이 입주한 산단 지정 개발 예정지인 화원면(2.46%)이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곡성농협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

곡성농협이 2년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사진〉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농협은 최근 조합원 800여명을 광주지역 전문병원에 의뢰해 암, 위내시경, 초음파, 간장질환 등 46가지의 정밀 종합검진을 무료로 실시했다.

배기섭 조합장은 “비닐하우스 시설이 많은 곡성에는 디스크 등 농부병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최영천 강진군 징수담당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최영천(41) 강진군청 세무팀 징수담당〈사진〉이 2007년 지방 세정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담당은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 145억 5천만원 중 145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캠페인에서 목표대비 110%의 징수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새얼굴

“독서·영어 교육 강화하겠다”

곽영체 완도교육장

“학생과 학교중심 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신임 곽영체(60) 완도교육장은 “‘청해의 얼’ 계승 교육과 독서와 영어교육을 강화해 완도 학생들의 실력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 출신인 곽 교육장은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강진교육장 등을 지냈으며 전남 초등과학교육연구회 장직을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양희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